

본 콘텐츠는 홈페이지 유료 상품의 일부입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 산업진흥법,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어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릇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꽤 재미나게 됐지요."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년래로 만든 사기(沙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얽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 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네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

퍼할 것이다.

너는 어째 그리도 못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놈은 얼송덜송 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주속(綾羅紬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앉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옷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 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나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독함은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두꺼비는 밤마다 내 문갑 위에서 혼자 잔다. 나는 가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나의 사랑하는 멍텅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희멀끔히 뜨고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가를 살핀 뒤에야 다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쭤다.

1. 이 글의 '두꺼비 연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
- ②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연적이다.
- ③ 예술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 물건이다.
- ④ 제작 기교에 있어서는 뛰어난 작품이다.
- ⑤ 내가 학교 길 옆의 가게에서 산 물건이다.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 ② '나'는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 ③ 두꺼비 연적을 만든 사람은 조선 사람일 것이다.
- ④ '나'가 골동집 출입을 하게 된 것은 주인 때문이다.
- ⑤ 두꺼비 연적은 골동가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저어 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 온다. 강물이 생사가 명멸하는 시간 속을 흐르면서 낡은 시간의 흔적을 물 위에 남기지 않듯이, ㉠ 자전거를 저어 갈 때 25,000분의 1 지도 위에 머리카락처럼 표기된 지방도·우마차로·소로·임도·등산로 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 오고 몸 밖으로 흘러 나간다. 흘러 오고 흘러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생사가 명멸하는 현재의 몸이다. 이끄는 몸과 이끌리는 몸이 현재의 몸속에서 합쳐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가려는 몸과 가지 못하는 몸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의 산속 오르막길 위에서 자전거는 멈춘다. 그 나아감과 멈춤이 오직 한 몸의 일이어서, ㉢ 자전거는 땅 위의 일엽 편주처럼 외롭고 새롭다.

자전거를 타고 저어 갈 때, 몸은 세상의 길 위로 흘러 나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과 길은 순결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몸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엔진이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 A ]

구르는 바퀴 위에서,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개하는 구동축을 따라서 길 위로 퍼져 나간다. 몸 앞의 길이 몸 안의 길로 흘러들어 왔다가 몸 뒤의 길로 빠져나갈 때,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은 몸이 곧 길임을 안다. 길은 저무는 산맥의 어둠 속으로 풀려서 사라지고, 기진한 몸을 길 위에 누일 때, 몸은 억압 없고 적의 없는 순결한 몸이다. 그 몸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서 굳히 잠든다.

㉣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리막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오르막을 오를 때 기어를 낮추면 다리에 걸리는 힘은 잘게 쪼개져서 분산된다. 자전거는 힘을 집중시켜서 힘든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힘을 쪼개 가면서 힘든 고개를 넘어간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켜 가면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분산된 힘을 겨우겨우 잇대어 가면서 고개를 넘는다.

(가)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를 때, 길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 올 뿐 아니라 기어의 톱니까지도 몸 안으로 흘러들어 온다. 내 몸이 나의 기어인 것이다. 오르막에서, 땀에 젖은 등판과 터질 듯한 심장과 허파는 바퀴와 길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 땅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은 함께 가거나, 함께 쓰러진다.

'신비'라는 말은 머뭇거리지지만 기진한 삶 속에도 신비는 있다.

(나) 오르막길 체인의 끊어질 듯한 마디마디에서, 기어의 톱니에서, 뒷바퀴 구동축 베어링에서, ㉥ 생의 신비는 반짝이면서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흐르고 구른다. 땅 위의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러 나아가는 일은 복되다

[ B ]

(다) 1단 기어는 고개의 가파름을 잘게 부수어 사람의 몸속으로 밀어 넣고,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

람의 몸이 그 쪼개진 힘들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길 위로 흘러보낸다. 1단 기어의 힘은 어린애 팔목처럼 부드럽고 연약해서 바퀴를 굴리는 다리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안쓰럽고, 동력은 풍문처럼 아득히 멀어져서 목마른 바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데, ㉠가장 완강한 가파름을 가장 연약한 힘으로 쓰다듬어 가며 자전거는 굽이 굽이 산맥 속을 돌아서 마루턱에 닿는다.

**[교재변형]**

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분류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대비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여러 특성을 바탕으로 세상과 인간의 삶에 담긴 의미를 밝히고 있다.

**[교재변형]**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전거를 타면 지도에 표시된 다양한 길을 직접 온몸으로 느끼며 지나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군.
- ② ㉡: 시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연과의 동화를 나타내고 있군.
- ③ ㉢: 힘든 오르막길 뒤에는 반드시 편한 내리막길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 인생의 이치를 암시한 것이군.
- ④ ㉣: 자전거 타기를 통해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군.
- ⑤ ㉣: '자전거'와 '나'의 일체감을 드러낸 것이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6과장 양반춤  
 말뚝이: (㉠ 벵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중에서 만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尹]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

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나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 개잘랑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짬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 연죽전(煙竹麩)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 이래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을 한 발 가운뎃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깎지 희자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흰화: 시끄럽게 지껄이며 떠들

5. 위 글의 재담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뚝이는 양반 뜻풀이와 담배와 흰화 금지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말뚝이의 변명으로 양반이 안심하며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 ③ 말뚝이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는 양반의 너그러움이 드러나 있다.
- ④ 전체적으로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
- ⑤ 말뚝이는 일시적으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는 체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양반이 잘못 들었다고 탓하고 있다.

6. ㉠은 공연예술로서의 탈춤의 특징이 잘 나타난 부분이다. (1)㉠에 드러난 표현방법을 두 가지를 쓰고, (2)서양공연예술과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7. 위 글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재담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 ② 재담과 재담 사이는 인과 관계를 이루어 긴밀하게 연결된다.
  - ③ 비속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사용되어 언어 사용의 양면성이 보인다.
  - ④ 풍자와 해학으로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⑤ 말뚝의 대사는 관객에게 기존의 관념과 질서를 무너지게 하여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만상주:** (문상객 1을 가리키며) 너 저놈하고 짜고 집 팔아넘기려 했지?  
**둘째 상주:** 이런 빌어먹을, 와 그리 머리통이 안 돌아가요? 상속세가 엄청난데 어떻게 하오? 그것도 겨우 사망 날짜 이틀 전으로 매매 계약서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  
**만상주:** 예라, 이 후례자식아! (박치기)  
**둘째 상주:** 아이, 코야!  
**만상주:** (둘째 상주 멍살을 잡고) 말해! 누구 작품이야?  
**둘째 상주:** 그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오. 형수한테 결제 받았소.  
**만상주:** (사이) 세상 다 살았다. (벌떡 일어서며) 졸초상이다—  
 만상주 달려가 처의 허리를 잡고 넘어진다. @“아이고 사람 잡네!” 느린, 처의 비명을 신호로 저승사자들과 둘째 상주를 제외한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일대 활극이 슬로비디오로 펼쳐진다. 이때 한쪽에선 사인펜으로 ‘100,000원’이라고 쓰인 지전을 둘째 상주 코앞에 들이미는 사자 3.  
**둘째 상주:** 이거 뭐꼬?  
**사자 3:** 백지 수표라며? 우리 큰성님이 현금으로 바꿔오래.  
**둘째 상주:** 내가 은행이냐?  
**석출:** 빨랑 바꿔 주시오. 잘못 건드리면 개판 되오.  
**둘째 상주:** 이거 순 날강도 아냐?  
**사자 1:** (먼 산 불 보듯) 저네들 왜 저래?

**사자 2:** 인간 세상 개판이군. (기어 오는 사자 3을 보고) 넌 왜 그 모양이야?  
**사자 3:** 인간 싸움에 사자 등 터졌소. 옛수! 현금 바꿔왔소.  
**사자 2:** 진작 그럴 것이지. 제법 신사적으로 노는군. 성님, 피리가 수금해 왔소.  
**사자 1:** 가만있거라. 잘못하면 계획에 없는 저승길 동행 생기겠다. (만상주를 가리키며) 저네들 왜 저래?  
**사자 3:** (둘째 상주를 가리키며) 저놈이 나쁜 놈이오! 죽은 할머니를 산 것처럼 속여서 가옥 토지 매매 계약서를 꾸며드립니다.  
**사자 1:** 그래? (사자 2를 돌아보며) 그거 저승법 몇 조에 해당되냐?  
**사자 2:**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 부분 제16장 4절에 해당되는 사문서 위조요.  
**사자 1:** 확실하냐?  
**사자 2:** 분명하오!  
**사자 1:** 출동!  
**사자 2, 3:** 출동! 출동!  
**처:** 까악! (혼절)  
 노모,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다. 통통 뛰어서, 옥신각신하는 만상주, 둘째 상주한테 가서 뺨을 때린다. “엄마다!” 하고 놀라는 만상주, 둘째 상주. 나머지는 “할매다!” 하며 놀란다.  
**사자 2:** (관에서 뛰어나온 노모에게) 여노는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반칙을 범하고 계시오?  
 노모, 손가락질로 다가오라는 시늉. 사자 2, 노모에게 다가가 귀를 댄다. 알았다는 듯 끄덕거리는 시늉. 사자 2, 뚜벅뚜벅 걸어와 둘째 상주 멍살을 잡아든다. 번쩍 들리는 둘째 상주.  
**둘째 상주:** 살려 주!  
**사자 2:** 안 되겠다. 어머니가 너하고 저승길 동행해야 되겠다.  
**둘째 상주:** 아이고, 나는 상주지 저승 갈 사람이 아니오.  
**사자 1:** 야, 이 후례자식아! 저승이 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여행 취소하는 온천장인 줄 알아?  
**석출:** 어떻게 편리 좀 봐줄 수 없겠소?  
**사자 1:** 무슨 편리?  
 석출, 사자 1에게 다가가 귀엣말. 사자 1, 눈을 깜빡

이며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사자 2에게 놓아주라는 눈짓. 털썩 떨어지는 둘째 상주. 석출, 둘째 상주에게 다가가 귀엣말 “게워 내!” 둘째 상주, 강력한 저항. 석출, 알아서 하라는……. 둘째 상주, 말없이 일어나 관으로 다가가 꿰어앉으며 애고 있게 “엄마아!” 노모, 뺨부터 철썩 울러붙인다. 둘째 상주, 옷 속에 껴쳐 둔 부조금을 하나둘 끄집어내어 관 속에 넣으며, 애고애고 돈 잃어 원통한 곡. 둘째 상주 일어서려는데, 노모, 어깨를 짚어 꿰어앉힌다. 노모의 수화(마임)―.

**사자 2:** ㉠(통역) 내 통장 내놔!

둘째 상주, 더욱 서러운 곡 놓으며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 속에 집어넣는다. 노모의 강력한 수화(마임)―.

**사자 2:** (통역) 집문서도!

**만상주:** 아이고, 집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까? 어머니가 떡장사해서 뼈 빠지게 세운 우리 가문의 터전인데…….

노모의 수화(마임)―.

**사자 2:** (통역) 집은 팔고 사는 부동산이 아니다. 요새 인간들이 가옥과 토지를 무슨 증권 거래하듯이 굴리는데, 이거, 안 좋아요! 집은 그냥 집이야, 방구들에 늘어붙어 편하게 살자고 세우는 게 집이지 돈 놓고 돈 먹는 뽕뽕이 판이 아니잖아! 알겠냐! 내가 떡장사해서 집 샀을 때, 너희들 부동산 투기하라고 헛지랄했냐? 새 새끼 둥지 틀 듯 자손이 이어지고, 종손이 집 지키고, 제삿밥 꼬박꼬박 얻어먹을 생각으로 집 세웠지. 너희들이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해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 찾아가냐? 서울 교통이 지옥인데 낯선 길 찾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 나이에 그 높은 계단 걸어서 올라갈 군번이냐, 내가!

**석출:**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복레 할머니.

노모, 짜증스러운 수화(마임)―.

**사자 2:** 혼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봐라. 쥐도 새도 모르게 구천 증음신 신세로 떨어진다. (둘째 상주에게) 빨리 집문서 내놔라!

둘째 상주, 하이고 자지러지며 집문서를 관 속에 던진다. 만상주와 처도 기절할 듯 곡소리―. 노모, 관 속을 더듬어 다발을 꺼내어 확 뿌리며 이별의 수화(마임)

―.  
**사자 2:** 자, 용돈이다. 닭 울기 전까지 신나게 화투판이나 벌여 봐라, 탁아, 나 진짜 간다!  
 - 이윤택, 「오구 - 죽음의 형식」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재미있고 흥겹게 풀어내고 있다.
- ③ 저승사자의 세상이 인간 세상과 다르지 않게 묘사되고 있다.
- ④ 사람과 저승사자가 대화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 ⑤ 풍자와 해학을 통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9. 이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소개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객과 함께 극을 이끌어 나가는 전통극
- ②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참여 연극
- ③ 장례를 통해 삶을 돌아보는 아이러니가 담긴 연극
- ④ 세련된 비유와 상징으로 깊은 의미를 전하는 놀이극
- ⑤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인의 파멸을 그려 낸 연극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무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다수한 재산은 다 패하고 전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데 있으리오.”

일번 낮을 가지고 동산으로 올라가서 박 덩굴을 함부로 오려 버릴새 뵈지 않는 덩굴 밑에 ㉠박 한 통이 그저 있으되 크기가 인경\*만 하고 무게가 천 근이나 되는 지라.

놀부가 그걸 보더니 분한 생각은 눈 슬 듯하고 ㉡허욕이 버섯 나서 혼잣말로,

“㉢그러면 그렇지, 인제야 보물 든 박을 얻었도다. 무게를 보아도 금이 많이 든 모양이요, 또 재물이 많이 든 고로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려고 덩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공연히 한탄을 하였으며 그 전 박통에서 나온 초라니 말이 금이 들기는 어느 박통에 들었으

리라 하더니 그 양반 말이 과연 옳도다. 황금 든 박이 여기 있는 줄 알았더라면 다른 박을 타지 말고 이 박을 먼저 컷을 것을.”

㉔ 희불자승(喜不自勝)\*하여 그 박을 따 가지고 내려오며,

“좋을 좋을 좋을시고, 지화자 좋을시고. 곱사등이 같은 박복한 놈 시종(始終)을 아니 보고 달아났으니 제 복이 그뿐이로다.” / 놀부 계집 내달아 하는 말이,

“그만두오, 그만두오. 박에 신물도 아니 납나? 만일 또 불량한 박이 나오면 어찌려고 박을 또 따 가지고 옵나?” / 놀부 이른 말이,

“방정맞고 요사한 년 물렀거라. 이 박은 정통 금박이니 재물이라면 넌들 아니 귀히 되랴. 잔말 말고 우리 두 양주 정성들여 켜 봅세.” / 박을 앞에 놓고 톱을 대어 탈새,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기어 주소 톱질이야.”

슬근슬근 타다가 반쯤 켜고 놀부가 우선 궁금증이 나서 박 속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㉕ 그 속이 아주 싯누런 것이 온통 황금 같거늘 놀부 보다가,

“수 낫구나,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 속을 들여다보소.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덩일세.”

놀부 아내 하는 말이,

“누른 것을 보니 금인가 싶으오마는 그 속에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니 그것이 웬일이오?” / 놀부 이른 말이,

“㉖  ㉗ 박이 더 익고 덜 익은 것이 있으니 이 박은 아주 농익은 고로 구린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른단 말인가? 어서 바빠 타고 보세.”

㉘ 슬근슬근 칠팔 분이나 타다가 놀부 양주 궁금증이 또 나서 톱을 멈추고 양편에 마주 앉아 들여다보니 별안간 박 속에서 모진 바람이 쏘아 나오며 벼락같은 소리가 나더니 똥 줄기가 무자위\* 줄기처럼 내쏘는지라. 놀부 양주가 똥 벼락을 맞고 나동그라지며 똥 줄기는 천군만마가 달려 나오는 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삽시간에 놀부 집 안팎채에 가득하니 ㉙ 놀부 양주 온몸이 황금덩이가 되어 달아나 멀찍이서 바라보니 온 집 안이 똥에 묻혔는지라. ㉚ 만일 왕십리 거름 장사가 알게 되면 한밑천 잡게 되었더라. 놀부 놈이 기막혀발을 동동 구르며 하는 말이,

“㉛ 여보 마누라, 이 노릇을 어찌하잔 말이오. 재물을 얻으려다가 수다히 있는 재물 다 탕진하고 나중은 똥으로 하여 의복 한 가지 없게 되니 어린 자식들과 장장 하일(夏日)에 무엇 먹고 살아나며 동지선달 설한풍에 무엇 입고 사잔 말이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처럼 땅을 두드리며 통곡할 제 앞뒷집에 사는 양반 계집까지 똥이 밀려가서 그득한지라. 그 양반들이 공론하고 고두쇠를 벼락같이 부르더니 놀부 놈을 즉각 잡아

오라 분부한다. 고두쇠 놈이 워낙 놀부 놈을 미워하는 터이라 조총(鳥銃)같이 달려가서 놀부 놈의 덜미를 푹푹 짚어 풍우같이 몰아다가 생원님 앞에 꿇린대, 생원님이 호령하되,

“이놈 놀부야, 듣거라. 네가 본디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 불목하고 일가에 불화하고 다만 재물만 아니, 도적보다 더 심할뿐더러 무슨 몫쓸 짓을 하다가 동내 양반이 귀가 시끄럽게 네 집에 환란이 첩출(疊出)하여 패가망신을 하니 그는 네 죄에 싯 일어이니와 네 죄로 하여 동내 양반 이 똥으로 못살게 되니 그런 죽일 놈이 어데 있으리오. 네 죄는 종속소기(從俗所期)\*려니와 우선 양반 댁에 싯인 똥을 해전에 다 처내되 만일 지체를 할 지경이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하고 일변 고두쇠를 호령하여 놀부를 결박하여 절굿공이 찜질을 하며 기왓장에 꿰려 앉히고 똥 처내기 전은 끌러 놓지 말라 하니, ㉜ 놀부 놈 가득 망극 중 기가 막히어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기왓장에 꿰어앉은 채 제 계집을 시켜 돈 오백 냥을 갖다 놓고 빨리 샅군을 놓아 왕십리, 안감내, 이태원, 둔집이, 청파, 칠패 여러 곳에 있는 거름 장사들을 있는 대로 불러다가 샅을 후히 주고 똥을 처낸 후에야 놀부가 겨우 놓여 와서 부부 서로 붙들고 갈 곳이 없어 통곡하더니, 이때 흥부가 놀부의 패가망신함을 알고 대경하여 일변 노복(奴僕)을 시켜 교자(轎子) 두 채와 말 두 필을 거느리고 친히 건너와 놀부 양주와 조카를 교자에 태우고 말을 태워 제 집으로 돌아와 일변 안방을 치우고 안돈(安頓)시킨 후 의식을 후히 하여 때로 공궤(供饋)\*하며 날로 위로하고 일변으로 좋은 터를 정하여 수만금을 들여 집을 제 집과 같이 짓고 세간 집물이며 의복 음식을 한결같이 하여 그 형을 살게 하니 놀부 같은 몫쓸 놈일망정 흥부의 어진 덕에 감동하여 전일을 회과(悔過)하고 형제 서로 화목하여 남에 없는 형제가 되니라. 흥부 내외는 부귀다남하여 향수(享壽)\*를 팔십 하고 자손이 번성하여 개개 옥수경지(玉樹瓊枝)\* 같아 가산이 대대로 풍족하니 그 후 사람들이 흥부의 어진 덕을 칭송하여 그 이름 백세에 민멸(泯滅)\*치 아니하더라.

- 작자 미상, 「흥부전(興夫傳)」

\*인경: 조선 시대에,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

\*희불자승: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매우 기쁨.

\*무자위: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

\*종속소기: 시속(時俗)에 따라 처리함.

\*공궤: 음식을 줌.

\*향수: 오래 사는 복을 누림.

\*옥수경지: 옥으로 만든 나무와 그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일컬음.

\*민멸: 자취나 흔적이 아주 없어짐.

10. 아래는 위 글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글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하려고 할 때, 각 모둠이 선정한 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근원 설화를 가지고 있는 설화 소설로, 조선 후기에 판소리로 창작되었다가 다시 소설로 정착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주제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고대 소설의 공통적인 주제인 인과응보의 권선징악 사상을 ‘흥부’와 ‘놀부’라는 두 인물의 대립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가난한 서민 계층과 새롭게 부를 축적한 부자 계층간의 빈부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 ① 1모둠 : 판소리가 어떤 변모 과정을 거쳐 고전 소설로 정착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일반화해 본다.
- ② 2모둠 : 고전 소설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로 구분해 본다.
- ③ 3모둠 : 근원 설화를 가지고 있는 고전 소설에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본다.
- ④ 4모둠 : 평민이 새로운 작가 계층으로 등장하면서 표현이나 주제 면에서 고전 소설에 새롭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⑤ 5모둠 : 근원 설화가 고전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긴 주제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 본다.

11. 위 글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을 비판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군.
- ② 괜한 트집을 잡아 행패를 부리는군.
- ③ 조심성 없이 제 욕심만 생각하는군.
- ④ 염치도 없이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쓰는군.
- ⑤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남의 탓만 하는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 “……뭇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 “동경서? 전보?” /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요!” /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꿩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온 식구가 제가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짜글트리고 앉습니다.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보가 분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 “종학, 사 - 상 관계 - 로, 경 - 시청에 피검!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地陷)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랑당 패가 백길 천 길로 침노(侵擄)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나) ㉠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 정답 및 해설

### 1) <답> ④

두꺼비 연적은 뛰어난 제작 기교를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다. '툭 튀어나온 눈깔과 ~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부분을 참고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모로 앉히고 보아도 못났다고 했다. ②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놀이라고 했다. ③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쳐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라고 말했다. ⑤ 글의 처음에서 내가 학교 길 옆의 가게에서 산 물건임이 드러난다.

### 2) <답> ②

'나'는 두꺼비 연적의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 놓고 사기로 한 점으로 보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며, 두꺼비 연적의 가치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면이 강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답> ⑤

⑤ [A]에서 글쓴이는 아날로그 방식의 '자전거'를 탈 때 몸을 통해 자신이 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자전거의 바퀴를 굴릴 때 자신이 가는 길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으며, 그렇게 길을 갈 때 몸이 순결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글쓴이는 이 글에서 자전거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전거 타기에 담긴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① 자전거를 탈 때 힘이 전달되는 과정을 분류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자전거가 가는 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여러 상징적인 표현하고 있지만, 글쓴이의 처지가 부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쓴이의 생각만 언급할 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 4) <답> ②

자전거를 탈 때 쓰러지지 않으려면 힘들어도 끊임없이 발로 바퀴를 굴려야 한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낯은 시간(과거)의 몸이 아니라 현재의 몸이 되는데, 이것은 힘들게 자전거를 탈 때만큼은 글쓴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자연과의 동화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① ㉠: 자전거를 타면 지도에 나오는 길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③ ㉡: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이 비긴다는 것은 힘든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편한 내리막길도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인생도 부침(浮沈)이 모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④ ㉢: '가장 완강한 가파름'을 '가장 연약한 힘'으로 올라 '마루턱'에 도달하는 자전거 타기의 방식을 내세워, 자전거 타기가 지닌 역설적 면모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자전거타기를 통해 힘든 삶이 닦쳐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은 자전거를 탈 때 길과 바퀴, 그리고 자전거 위에 있는 글쓴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 5) <답> ③

말뚝이의 변명에 안심하는 양반의 모습은 말뚝이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는 너그름이라기보다는 양반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6) <답> (1)과장법과 열거법 (2)서양공연예술과 달리 관객과 배우가 소통한다.

열거와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우리 전통극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7) <답> ②

### 8) <답> ①

독백보다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갈등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9) <답> ③

이 글은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굿이라는 흥겨운 놀이로 풀어내어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희곡이다.

### 10) <답> ④

<보기>에는 작가 계층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심화 학습의 과제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에는 '근원 설화 → 판소리 →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발전 과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①과 ③은 이와 관련된 심화 학습의 과제이다. ②는 <보기>에 나오는 「흥부전」의 표면적, 이면적 주제와 관련된 심화 학습의 과제이며, ⑤는 '근원설화 → 판소리 →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주제에 변화가 생겼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심화 학습의 과제이다.

### 11) <답> ③

놀부는 인과응보에 의해 벌을 받았음에도 욕심을 부려  
박을 타려 하고 있다.

12) <답> ②

이 소설에서 비속어는 인물에 대한 풍자를 위해 쓰였  
다.

13) <답> 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